

### 광주시교육청, 청소년과 인권 골드벨 진행



광주시교육청은 12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관내 중학생 60명과 '제9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 골드벨' (이하 인권골드벨)을 진행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시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누리자 인권! 우리자 골드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팀 중 최종 다득점 5팀이 선정돼 3팀에게는 교육감상이, 나머지 2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장상과 시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모든 참가자는 실버벨상을 수상했다.

참가자들은 5·18민주화 운동 사적지를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통해 체험하고 영상, 예술 작품을 감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목포대, 발달장애 청년들 난타 공연복 제작 지원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패션의류학과는 지난 7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발달 장애 청년들을 위한 난타 공연복을 제작해 공개했다. (사진)

'명도 ON'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친화마을을 만드는 '하나(HANA) 프로젝트'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권리 증진,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패션의류학과 차수정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저고리와 바지, 패자 등 난타 공연을 위한 의상을 제작했다. 패션의류학과는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동교동계 '주임상사' 진도 출신 박양수 전 의원 별세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등의 조직과 선거 실무책임자로 오래 활동한 동교동계 '주임상사' 박양수(사진) 전 의원이 10일 오후 8시 3분께 서울성모 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2일 전했다. 향년 86세.

진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목포 문태고를 졸업한 뒤 1971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박지원 의원의 고향(진도) 선배이자 문태고 선배이다. 밀양 박씨 한집안이기도 하다. 고인은 국민의 사무부총장으로 천거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국회의원회 사무총장이던 한광욱 전 의원과도 가까웠다.

15년 8개월간 보좌관 생활을 했고, 1984년 김상현 전 의원의 권유를 받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운영위원으로 동교동계에 합류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을 이어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 남도교통, 착한일터 나눔 동참...순천 1호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일 ㈜남도교통이 2024년 1호 착한일터로 가입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남도교통은 사랑의열매 연중캠페인인 '우리전남, 희망여를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순천시에서 가장 먼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순천시 1호로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이날 직원 13명이 정기기부 약정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으며 조성된 기부금은 순천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광산구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기초 교육 마련



광주시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하영자·이하 광산구 꿈드림)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초소양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이번에 실시한 '청소년필수교육 11종 패키지'는 근로권익, 성교육을 비롯해 자살예방, 마약, 도박 예방과 안전, 금융, 저작권 교육 등을 포함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박원균 스타테크 회장 '초록우산 나눔기업' 가입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최근 ㈜스타테크(회장 박원균)를 대상으로 '초록우산 나눔기업'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박원균 회장은 여수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정기후원에 참여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어린이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부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장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사랑의 가족(재)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건강의 재구성 셀룩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우리, 집(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2024 단오장사 씨름대회 <백부장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주디세이 퀴즈쇼 15 다이노 파워즈 3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한국사 대모험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속복권 720+ 10 용감무장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15 시장의 폭력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덩치 서바이벌-먹피빠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2장 1절(재)	40 우리, 집 물어보기(재)	50 테마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닥터 365 55 네모세모(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랜드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PD로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 속의 집 독일·오스트리아 -인생 2막 놀이터>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버스 타고 택시 타고 4부 곡성에서 뭐 먹지?>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55 귀하신 몸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불룩스	22:45 다큐멘터리K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댕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고고다노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꿈끼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3일 (음 5월 8일 戊申)	☎ 010-9790-8237
36년생 발효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니라. 48년생 열심하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60년생 필요로 해왔던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2년생 오랜만에 만나서 화포를 풀며, 기쁜 시간을 나누리라. 84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96년생 징후가 보여도 내버려 두다면 정녕 약화될 게 뻔하다. 행운의 숫자 : 18, 67	42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54년생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일이다. 66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를 낚게 해줄 것이다. 78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90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02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6, 84	
37년생 진정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49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61년생 북적거리는 판세가 계속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7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85년생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97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 행운의 숫자 : 43, 69	43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루리라. 55년생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67년생 현대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요제는 따로 없느니라. 79년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정황도 아니다. 91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 03년생 진면모를 파악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3, 71	
38년생 구우일모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50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62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74년생 가장 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6년생 주관적 추측이라던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98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88	44년생 하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56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68년생 정성을 다해 왔다면 효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80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극히 현명하다. 92년생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성사의 가능성을 높게 된다. 04년생 안정 계도에 진입하리라. 행운의 숫자 : 48, 56	
39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다. 51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63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75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87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99년생 의미가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9, 66	45년생 마음은 바가 그대로 형성될 수 있다. 57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69년생 안정 계도로 진입하게 되는 길목에 서 있다. 81년생 중기는 끝났을 때 짜아하고 슬은 필 때 걸려야 하느니라. 93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05년생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3, 59	
40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52년생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64년생 제안사가 지체되다가 종국적으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76년생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88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거주장소라워지겠다. 00년생 고역이 따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7, 96	46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장애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유 버려도 된다. 70년생 손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82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94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안심해도 된다. 06년생 징후가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4, 77	
41년생 기존의 정황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리라. 53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65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77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하라. 89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01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75	35년생 대상의 선정에 따라서 천차만별한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라. 47년생 응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 59년생 단편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71년생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라. 83년생 평소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니 잘 살펴라. 95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39, 75	